

대통령 직함 '문재인 효과'에 지역여론 왜곡

민주 광주·전남 예비후보 19명 중 15명 靑 직함 사용 지지율 최대 8~10%p 높아 변별력 떨어지고 유권자 혼란 민주당, 사용 논의 찬반 팽팽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된 경력을 대표 직함으로 쓰는 광주·전남지역 후보가 크게 늘면서 "지역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를 넘나들고 있어, 문 대통령 관련 직함을 사용하는 후보의 지지율도 덩달아 높게 나온다는 분석 때문이다.

후보의 역량과 정치력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경력 포함여부만으로도 후보 간 지지율이 달라지면서 '광주·전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호칭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은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각종 경력을 대표 직함으로 사용하거나 최근 대표 직함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대거 교체했다.

실제, 이날 현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19명의 민주당 후보자들 중 무려 15명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호칭을 대표 직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동남갑 서정성·윤영덕·이정희·최영호(이하 가나다순) ▲동남을 김해경·이병훈 ▲서구를 고삼석·양항자 ▲북구갑 조오섭 ▲북구를 전진숙 ▲광산갑 이석형·이용민 ▲광산을 김성진·민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박시중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청와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경력을 '0000(문재인 대통령 임명)' 등으로 표기해 간접적으로 '문재인 효과'를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관련 직함을 쓰지 않았던 일부 예비후보들도 기존의 직함을 버리고 문재인 관련 직함을 선관위에 대표 직함으로 교체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예비후보자의 경우 기존 단채장 직함과 문재인 대통령 직함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한 결과 많게는 8~10%포인트 가량 지지율 차이가 나자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 직함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 광역 단채의 부단체장을 역임한 다른 예비후보도 같은 이유로 부단체장 직함 대신 문재인 대통령 직함을 여론조사에 쓰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직함 자체가 광주 지역 선거 판세를 크게 흔들고 있어 유권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너도나도 문재인 대통령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후보들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고, 지역의 역량 있는 후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선관위의 직함 등록 규정을 정비해 광주·전남만이라도 특정 직함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경력을 사용하느냐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본선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경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후보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지율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선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총선 라운지

김명진 "광주 서구를 지식복지도시로"

서구갑 예비후보

대안신당 김명진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서구를 지식복지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식복지도시의 물질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삶의 행복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며 "상무소각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광주대표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업무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작은 도서관 확충 사업'을 주민들의 참여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의 정보접근성과 지적 욕구 충족을 향상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동별로 주민센터 등 공공 시설 및 민간 시설의 유휴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작은 도서관 확충 사업'을 주민들의 참여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항자 "광주 경제 획기적 변화 끌어내겠다"

서구를 예비후보

양항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최고위원은 "낙후된 경제를 해결할 전문성과 대안을 갖춘 후보"라며 "기회를 주면 반드시 광주 경제에 큰 변



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는 정치, 시민의 피해 의식을 이용한 지역 주의, 아쉬울 때만 시민 찾는 정치는 더는 안 된다"며 "시민을 돕겠다고 나서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고흥 지족항·장흥 우산항 기반시설 확충"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대안신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8일 "전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고흥 지족항과 장흥 우산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고흥 지족항과 장흥 우산항은 군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어왔



으나, 앞으로 전남도 주도 하에, 어항 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부터 두 지방어항에 예산을 투입해 어항 현대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컷-오프 배점, 여론조사 40% '최고'

경력은 6개월 이상 근무만 인정...정체성·도덕성 각 15%

민주당의 후보 공모가 28일 마감된 가운데 컷-오프 배점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컷-오프 배점 기준에 있어 적합도 여론조사가 40%로 가장 높다. 적합도 여론조사는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25자 이내의 대표 경력 2개를 사용한다. 경력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증명서를 제출할때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직함이 들어가는 경력 사용을 놓고 예비 후보자들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함 프리미엄이 최대 10% 포인트 이상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경선은 컷-오프 여론조사 기준과 별개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당 선관위가 내부 논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적합도 여론조사에 이어 정체성과 도덕성이 각각 15%의 배점을 차지하고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 면접 점수가 각각 10%씩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2월 초 진행되는 적합도 여론조사에 조직을 총동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면접 과정에서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을 최대한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김의겸·정봉주에 불출마 권고

부동산·미투 논란 연루 부담... "판단은 당사자 몫"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그분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그들이 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 군산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천 배제 등 강제적 방법보다는 권고를 통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도 이번 총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 보도로 복당 불허 결정을 받은 뒤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 뒤 입당을 허가받았다. 당내에서는 정 전 의원이 예비후보 검증 신청을 하지 않은데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선정 '박지원의 힘'

도시사·시장과 공조 체제 인맥 총동원 정부 공략

목포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된데에는 박지원 국회의원(목포시)의 숨은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관계 마당발인 박 의원은 목포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것은 물론 김영록 전남지사, 김중식 목포시장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정부 관계자들을 집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의원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각별한 인연도 상당한 영



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의원의 박 장관은 국민의정부청와대에 서 수석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목포시가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것은 독특한 근대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 교통 인프라 등 목포의 거대한 관광 잠재력 때문"이라며 "앞으로 목포의 '100만 관광시대'를 현실화시켜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G.O.Auction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보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56%) 16억4천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70%) 62억7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70%) 29억3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농 지** 광주 서구 쌍촌동 488번지 266㎡(80.5평) 감정가 2억3천6백75만원 원룸, 주택부지 적합
- 농 지** 광주 서구 동림동 180-1번지 1098㎡(332.1평) 감정가 2억8천9백9십만원 최저가 (70%) 2억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운암동 780-56 토지 168㎡(50.82평) 건물 205.87㎡(62.276평) 감정가 1억6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